



2014 메디체크 건강마을 가꾸기 “문경에 노랑꽃창포 심으러 왔어요~”

“문경에는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꽃 찾으러 왔단다? 아니, 꽃 ‘심으러’ 왔단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임·직원들이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난 노랑꽃창포
모종을 한 아름씩 들고 경상북도 문경시 조령천을 찾았다.
늦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여름날,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모종을 심다 보니, 어느새 조령천 주변이 노랑꽃창포
모종으로 가득 채워졌다.

글 최가영 기자 사진 이관중 STUDIO 100

어느덧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건강관
리협회 메디체크가 올해도 어김없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메디체크 건강마을 가꾸기’ 사회공헌활동을 펼쳤
다. 8월 26일과 29일 양일간 문화유산이 숨쉬는 도시 경상
북도 문경에서 본부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 2,000여 명의
임·직원들은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하천 수질정화를 위
한 노랑꽃창포 심기, 의류 및 후원금 기탁 등 3개 활동에 차
수별로 참여하여 무엇보다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서 임·직원들은 문경시가 선정한 10
개 소외계층 가구를 중심으로 청소 및 도배, 낡은 장판과 주
방 가구 교체 등의 활동을 펼쳤다. 집 안의 낡은 벽지와 장판
을 걷어 내고 새 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고, 집 안 곳곳을 보
수하여 청소까지 끝마치는 과정을 지켜보던 소외계층 가구
의 한 주민은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구슬땀을 흘리니 그
저 감사할 따름이다.”며, “깨끗해진 집 안을 보니 내 마음까
지 깨끗해지는 기분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다 심고 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계속 잘 관리해서
내년에 활짝 핀 노랑꽃창포를
보고 싶어요.

경북지부 조지혜 사원

정말 보람 있네요.
시민들에게 밝고 건강한 웃음을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조령천에
노랑꽃창포를 심고 있어요.

인천지부 송춘우 팀장

어서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날이 더워서
힘들지만 내년에 활짝 핀 노랑꽃
창포를 생각하니 참 좋네요.

부산지부 김예진 사원



문경시는 2013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 1위'로 지정된 고장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문경시 조령천에 노랑꽃창포 1만 5,000본을 심었다. 임직원들은 주변에 무성히 자라난 유해식물과 잡풀을 일일이 낮으로 정리하여 드러난 토양에 아직은 작고 여러 보이는 노랑꽃창포 모종을 뽁뽁하게 심었다. 이뿐만 아니라 조령천 주변을 꼼꼼히 둘러보며 각종 쓰레기를 줍는 주변환경정화 활동까지 진행했다.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노랑꽃창포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는 2010년부터 매년 직원 전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연탄나누기, 농촌일손돕기, 복지기관 자원봉사, 환경정화활동 등의 건강마을 가꾸기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번 '메디체크 건강마을 가꾸기' 사회공헌활동 또한 2014년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직원 전체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특히 2013년부터는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주요 하천 유역에 노랑꽃창포를 심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정확한 건강검진과 체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온 종합건강검진기관에서 더욱 도약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 가구를 돕고 우리나라 하천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활동으로 국민의 건

강한 내일을 가꾸는 데 앞장서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전국 18개 주요 하천 유역 약 7,030㎡(2,100여 평)에 심은 노랑꽃창포의 수만 해도 10만 6,300여 본에 이른다. 노랑꽃창포는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며, 겨울에도 초록잎이 살아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다. 무엇보다 뛰어난 특성은 수질정화 능력이다.

내년 봄과 초여름에 조령천에서 만개할 노랑꽃창포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란 꽃과 긴 초록색 잎사귀로 보는 이에게 즐거움과 생동감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조한익 회장은 "우리 직원들의 사랑 나눔으로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가을을 보냈으면 한다."며, "이 지역 하천도 건협 직원들이 정성껏 심은 노랑꽃창포로 깨끗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mini interview



한국건강관리협회 조한익 회장

“건강한 자연과 나눔의 행복”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의 조한익 회장은 “건협은 국민의 건강동반자”라며, “매년 직원 전체연수 프로그램에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구성하여 직원들이 건강한 자연의 중요성과 나눔의 행복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건강수명

120세를 달성하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습관과 함께 건강한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며 “건협은 국민이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전국의 주요 하천에 노랑꽃창포를 심고 있다.”고 밝혔다.